

## 지방자치·종합

## 저축銀 수사 대선자금으로 번지나

돈 오간 시점 대선시기 맞물려…野 암박 부담

## 檢, 1억 수수 혐의 정두언 의원 소환 조사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현 정부 실세들을 겨냥하는 검찰 수사가 대선자금 수사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수사의 초점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의 개인비리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금품수수 시기와 등장인물의 면면에 비춰 대선자금 문제로 불똥이 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우선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시점과 관련이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임 회장과 김경한(56·구속기소) 미래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합계 6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은 17대 대선이 치러졌던 해다. 특히 정두언 의원이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경선 직후 임 회장을 이 전 의원에게 소개해준 시기가 대선자금 모금이 학창이던 때와 묘하게 일치하고 있다.

정 의원도 2007년 초 알게 된 임 회장으로부터 그해 하반기에서 이듬해 사이에 1억원 안팎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대선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임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았고, 그 돈 중 일부가 대선 캠프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이 전 의원에게 김경한 회장을 소개해준 인물이 이명박 캠프의 핵심 원로그룹 '6인회' 멤버 중 한 명인 김덕룡(71)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 알려진 점도 이들의 커넥션이 대선자금 모금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의혹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 '대선 자금을 전면적으로 수사하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 검찰로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민주통합당 강기정 최고위원은 4일 "저축은행 비리자금 수수 시기가 2007년

정치인이 대가성이 있는 부정한 돈을 받았느냐, 그 대로로 저축은행에 유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줬느냐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대선자금으로의 유입 여부 등 자금의 용처는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을 사법처리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굳이 서두를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 '대선 자금을 전면적으로 수사하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 검찰로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민주통합당 강기정 최고위원은 4일 "저축은행 비리자금 수수 시기가 2007년



여성 권익향상 선서

5일 오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성주간(7월 1일~7일)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양성평등과 여성 권익향상을 다짐하며 선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산구의회 의장에 차경섭… 경선 불복 논란도

광주시 광산구의회가 5일 제184회 임시회를 열고 민주통합당 소속 차경섭(나선거구) 의원과 차경섭 의원을 상대로 전체 14명의 의원이 투표를 실시, 8표를 얻은 차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차 의원은 지난 1일 치러진 민주당 의장 후보 경선에서 민주당 측 의원 9명 가운데 3표를 얻는데 그쳐 5표를 얻은 박삼용 의원에게 패배했지만, 이에 불복하고 의장 후보로 등록했다.

애초 민주당 측 의원들은 당내 경선에 불복하는 등 경선 후유증을 감안해 사

기 의장 후보로 등록한 박삼용(가 선거구) 의원과 차경섭 의원을 상대로 전체 14명의 의원이 투표를 실시, 8표를 얻은 차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차 의원은 지난 1일 치러진 민주당 의장 후보 경선에서 민주당 측 의원 9명 가운데 3표를 얻는데 그쳐 5표를 얻은 박삼용 의원에게 패배했지만, 이에 불복하고 의장 후보로 등록했다.

애초 민주당 측 의원들은 당내 경선에 불복하는 등 경선 후유증을 감안해 사

전에 후보들에게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서약서까지 제출받았었다.

이에 따라 애초 민주당 의장 후보로 선출됐던 박삼용 의원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의장선출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한 체 통합진보당 측 의원들과 약합해 당선됐다"며 "중앙당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철기자 sck@kwangju.co.kr

## 서구의회 의장 장재성

광주 서구의회는 5일 민주당 의장 후보로 선출됐던 재선인 장재성(민주·가 선거구)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장 의원은 재직의원 13명 중 8표를 얻어 4표를 획득한 통합진보당 유정수 의원을 누르고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1표는 무효처리됐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7표를 획득한 통합진보당 이은주 의원이 6표에 그친 민주통합당 황현택 의원을 누르고 부의장에 당선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오늘의 여수엑스포

여수세계박람회는 심심할 틈이 없다. 전시관 입장장을 기다리는 시간에도 다양한 공연팀들이 찾아와 이색 공연을 선사한다. 스플릿페레이드는 개인 분장을 한 배우들이 춤을 추며 행진하는 팀이다. 관람객과 어우러져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선사한다.

△스플릿페레이드(국제관·오전 10시30분)

△국가의 날·가봉(엑스포홀·오전 10시)

△비단페리 공방(아리마극장·오전 10시30분)

△댄싱히어로(천막극장·오후 2시)

△팝스티벌·아이비·비비컴·부기킹즈(특설무대·오후 8시)

△DJ댄스쇼(엑스포특설무대·밤 9시30분)

△어제의 관람객 수=5만3977명(이하 5일 오후 6시 현재)

△누적관람객 수=286만9399명

## ■ 현장과 시각 ■

## '드래그'(drag) 선생님



'담백, 친밀, 활발, 이해력·사고력이 매우 우수하다'(1학년) '독서력이 왕성하고 온순, 정직하며 통계력과 판단 능력이 뛰어난 뿐 아니라 진취적이다'(3~5학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점기 때 다녔던 목포상고(현 전남제일고) 시절 일본인 담임교사(1학년) 등이 종합생활기록란(性行)에 기록한 내용이다.

이들이 짚어낸 학창시절 김 전 대통령의 특장은 국민이 현재까지도 기억하는 그의 이미지 그대로다. 종합생활기록란에 공개되자 국민은 "교사가 제자 김대중을 정밀하게 관찰, 지도했기 때문에 큰 정치 지도자의 자질까지 읽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무릎을 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중고 생활기록부를 작성한 담임교사들도 마찬가지. '통솔력이 있다. 지도능력이 있다. 정의감이 있다'며 지도자의 자질을 언급했다. 또 '비타협적이고 독선적이다. 자만심이 강하다'는 비판적인 평가도 남겼다.

학생의 품성과 재능을 한마디로 학생하는 타월한식 견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제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에 따라 제자의 품성을 기르고 가르쳤음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입수한 광주시교육청의 최근 감사결과는 놀라웠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이 같은 문장을 토씨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학급 전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특기사항란에 적어넣은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해당 교사들은 한 개, 혹은 두 개 문장을 작성한 뒤 복사해서 학생부에 그대로 붙여넣었다. 교과부가 허용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언급하기에 앞서 이는 직업적인 금도를 어긴 행위다.

감사 담당자가 "이건 아니잖아요"라고 지적하자, 해당 교사들은 "집무가 많다 보니, 잘 몰라서"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들은 제자들의 평생 학업기록이자, 자신의 교단일기인 학생부를 작성하는 본분을 단순히 물리적인 '일'로 여긴 것이다.

적발 사실로 보면 학부모들이 "혹시 교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도 이처럼 무성의하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더 큰 실망은 이들이 교직에 몸담은 지 재 5년이 되지 않는 젊은 선생님이라는 점이다. 교단의 불감증과 안일함도 이런 행태를 키웠다. 대학입시 전형의 중요한잣대가 되는 고교 학생부와 달리 초교는 외부 평가 대상이 되지 않고, 학부모들도 크게 문제삼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이뤄진다는 게 교육계의 지적이다.

'학생부 평가 귀찮다 붙여넣기 선생님' 기사가 광주일보(7월5일자 1면)에 보도되자 한 고장선생님이 이를 아침 전화를 걸어왔다. "학부모들이 그렇잖아도 교사와 교단을 불신하는데, 교사들을 모두 이렇게 무성의한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우려섞인 내용이었다.

기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일부 교사들의 실수로 교단이 오물을 뒤집어 썼다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는 분들보다 선생님처럼 부끄러워 하는 교사들이 광주교단에 더 많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 penfoot@kwangju.co.kr

## 무단 방북 노수희씨

## 당국, 긴급체포

부단 방북했던 노수희(68)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5일 북한 체류 104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노씨는 이날 오후 3시께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쪽으로 넘어왔다.

군사분계선 남쪽에 대기하던 통일부 연락관이 노씨의 신병을 인수했으며, 곧바로 공안당국 관계자들에게 인계했다.

공안당국은 노씨를 긴급체포해 연행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의 귀환에 앞서 판문점 북측지역에서는 북측 관계자 200여명이 나와 한반도기를 흔들며 환송행사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3월 24일 정부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했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씨는 방북 기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는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서거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상실이며 최대의 슬픔이었다" 등의 찬양성 발언을 했다. 김정일 위원장을 '민족의 어버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 &lt;건물구함&gt;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디자인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 &lt;토지구함&gt;

■ 지역 : 광주 구 도천동 하림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용도지역:지연녹지 · 용도 : 주차장

■ 청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 &lt;모텔 매매&gt;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7천만 원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900만원

## &lt;상무지구 토지매매&gt;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점, 농지전용 원로.

매매가 협의후 결정

## &lt;토지 매도&gt;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어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장성I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371-1900 ,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 대인동삼일부동산

##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빼고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설분과 얻으실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